

碩士學位請求論文

父-母 養育態도의 差異와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鄭 梅 子

1999年 8月

父母 養育態도의 差異와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 專攻

提出者 鄭 梅 子



鄭 梅 子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년 7월 일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초록>

父-母 養育態도의 差異와 子女의 情緒的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鄭 梅 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 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9개 초등학교 5·6학년 한 학급씩 표집하여 성실히 응답한 1959부(아버지:653명, 어머니:653명, 남학생:299명, 여학생:354명)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아들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공격행동에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딸의 경우는 공격행동에 관련이 있었고,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아들만이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자율-통제적 태도인 경우, 딸의 경우에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와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아들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일치불일치 태도에 따른 성별 부적응 행동에서는 공격행동에서 역시 아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공격행동에 5학년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취압력적 태도에서는 6학년이 과잉행동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과잉행동에 6학년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공격행동에 5학년이 관련이 있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수용-거부적태도일 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검증에서는 수용-거부적인 태도와 성취압력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유의하게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섯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들의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차가 커질수록 위축행동이 줄어들고, 자율-통제적 태도의 차가 커질수록 과잉행동은 늘어났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	4
2.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과 특징	8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유형과 특징	14
4.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23
1. 표집대상	23
2. 측정도구	24
3. 자료처리	26
IV. 결과 및 해석	27
V. 요약 및 결론	43
1. 요약	43
2. 결론	46
참고문헌	49
(ABSTRACT)	54
부 록	56



표 차 례

<표 II-1>	부모 양육태도 구성내용	13
<표 III-1>	응답자 현황	24
<표 III-2>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25
<표 III-3>	검사도구의 행동요인과 관련문항 번호	26
<표 IV-1>	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27
<표 IV-2>	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28
<표 IV-3>	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29
<표 IV-4>	부의 일치불일치적 양육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0
<표 IV-5>	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1
<표 IV-6>	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1
<표 IV-7>	모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2
<표 IV-8>	모의 일치-불일치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3
<표 IV-9>	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4
<표 IV-10>	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5
<표 IV-11>	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5
<표 IV-12>	부의 일치적 양육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6
<표 IV-13>	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7
<표 IV-14>	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8
<표 IV-15>	모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9
<표 IV-16>	모의 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40
<표 IV-17>	아버지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40
<표 IV-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41
<표 IV-19>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검증	42
<표 IV-20>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	42

그 립 차 례

[그림 1]	Schaefer의 아동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10
--------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최초의 장소이며, 인간의 지적 발달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사회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며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발달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아동기를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생활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 에너지원으로 작용함은 물론 자녀들의 성격, 지능, 대인관계 능력 등 자녀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김재은(1974)은 부모-자녀 관계를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요, 작용 요인이라 하면서 이 관계야말로 인간관계 중 가장 전체적이고 보편적, 영구적 인간 관계라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그 방식에 의하여 성격 특성이 결정되고 사회적응법, 학습의 동기와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Kagan, 1968).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부모의 양육 태도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격과 태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부적응 행동을 야기 시키고 있다.

즉 자녀의 학습, 태도, 성격, 생활에 대한 부모간 불일치는 자녀의 태도에 대한 결단성 부족을 야기 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부부간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공포심이 많고, 소심하고, 침착성이 없으며, 남의 기분을 맞추는 성격을 발달시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중적 행동형성 및 기회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한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김형호(1978)는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유형 면에서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 가정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도 정서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0년 중반에 들어와서야 가족 관계와 가족 응집성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자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의 양육태도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연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특징을 다루고,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가?
3. 부-모간 양육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4.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5.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표집 대상이 제주도에 소재 하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시, 도와 전국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가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가 아니라 질문지법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면접법이나 관찰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포괄적으로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부-모 자녀간의 양육태도의 차이 측정도구는 부-모 모두 같은 설문지로 실시하여 정확한 양육태도의 차이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부·모 각 개인별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가정에서 작성할 때, 작성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유형과 특징에 이어서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

인간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절대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환경이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추선경, 1978).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는 양육태도는 그 자녀의 점진적 성숙에 따라 다양하다. 즉 부모는 처음에는 돌보는 사람(care taker), 다음은 통제자(controller)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화자(socializing agent)라는 세 가지 역할을 하며 특히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사회화자로서의 역할은 부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Buss & Plomin, 1975).

Child(1953)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육아방식에 있어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인간의 성격적 측면 즉 공격성, 의존성, 성취동기와 같은 성격적 측면을 정의적 내지 정신분석학적 견지에서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부모의 정의적 태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1950년대까지는 육아 방식의 중심적 경향이였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사회화 기술 즉 금지나 벌 등에 대해 아동이 취하거나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는 지식 혼용적인 태도로서, 1960년대 이후 아동의 지적 발달과정에 대한 피아제의 이론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주로 지적인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의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으로 크게 대별 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김재은(1974)은 부모-자녀 관계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심리 사회적인 특질로 종합 정리하였다.

즉 부모-자녀의 관계는 첫째, 유전인자에 의한 생물학적 연결을 가지고 있고, 둘째, 자녀의 출생이후 부모의 사망까지 계속되는 영속적이고 운명적인 공동관계이다. 그리고 셋째, 부모 편에서는 자녀란 사회화의 최우선적인 대상이며 자녀 편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 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이며 또한, 모범의 대상이란 점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교육적이고도 문화적인 관계이다. 넷째, 애정과 신뢰의 의존, 권위와 존경 등의 관계로 융화되어 체감을 갖게 하는 정서적 관계로서 모든 이익에 앞서 고려되어지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산적 관계가 아니고 비합리적이고 비타산적 관계이다. 다섯째, 부모 또는 자녀자신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만 부모-자녀의 관계가 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생육환경을 포함하는 역사적, 법제적, 관습적, 도덕적, 여러 조건 즉 넓은 의미의 문화적, 전통적 조건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여섯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자녀라는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화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거하여 특정한 지적, 정의적 특성을 자녀들에게 내면화시킨다. 이러한 내면화의 시도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원만한 인성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건전한 인간 관계이며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반영되어 자녀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Walters와 Stinnett(1971)에 의한 연구는 60년대와 70년대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문헌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해주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수용과 따뜻함은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수용, 따뜻함, 사랑이 결여된 극단적인 지배, 제한, 체벌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Jersild(1966)는 수용과 애정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태도가 성장과 함께 일반화되어 이로써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자기방어의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되며,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과보호적인 태도는 아동에게 탐험의 기회를 주지 못함으로 거부와 동일시 한다고 하였다.

Buss 와 Plomin(1975)도 역시 육아에 가장 중요한 부모의 기질은 사교성이라고 하면서, 사교적인 사람은 친족을 찾으려 애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교적인 사람은 그의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고 벌을 적게 줌으로써 어린이에게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다소 통제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애정 어린 통제라면 공격성, 불안, 질투심이나 신경질적인 성격을 형

성하지 않는다.

부모의 애정이 그만큼 그 자녀의 안정된 감정을 갖게 한다. 여기에 이어 정원식(1973)은 애정이 결핍되었을 때 반사회적,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되며, 인간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특히 어렸을 때 부모-자녀간에 이루어졌던 관계 중 결핍여하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한 거부형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성격형성에서 행동의 이중성과 공격적인 것이 대인관계에서 수시로 나타나지만, 수용형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열등감, 고독, 차단적 성격, 책임감 부족,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사회 적응력이 부족하고 버릇이 없다고 하였다. 덧붙여서 지배형의 부모에게서 자란 어린이는 동요감을 보이고 자립심이 약하여 순종적인 동시에 겁이 많고 냉담과 무감동의 사회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Slater(1860)는 부모가 거부형과 모순형인 아동은 충동적이 되고, 부모가 온정적이고 애정에 넘치면 활달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정되며, 부모가 관용적일수록 아동의 자아가 보다 강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Medinnus(1959)는 범죄 소년집단과 일반 소년집단 사이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범죄 소년집단은 아버지에 대해 특히 거부와 무시의 차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Gordon(1969) 또한 비정상집단의 아동은 부모를 거부적이라고 지각했고, 범죄아 집단은 부모가 과잉 지배적이라고 지각하여 부모의 거부적, 과잉 지배적 태도가 자녀의 건전한 성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됨을 시사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안진과 서봉연(1982)도, 부모의 과잉보호는 수줍음, 불안, 초조감을 갖고 신경질적이며 어색하고 유치한 표정과 몸짓을 하며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며 사회적 열등감, 용기부족 등의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하여 부모가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순종적이고 민감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자신감이 결여되고 용기가 낮다고 이들은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 자녀의 성격 및 정의적 특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성격,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며 부와 모 사이의 서로 일치하는 태도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과 특징

Fishbein(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임선화(1987)에 의하면 양육태도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남상인(1983) 역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정의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모두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양육태도를 크게 유형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부모-자녀 관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배적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적 태도는 간섭형과 불만형, 복종적

태도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적 태도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대개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 된다. 또한 예의가 바른 대신 반항적, 투쟁적인 행동이 많다. 그리고 자립심과 창조성이 결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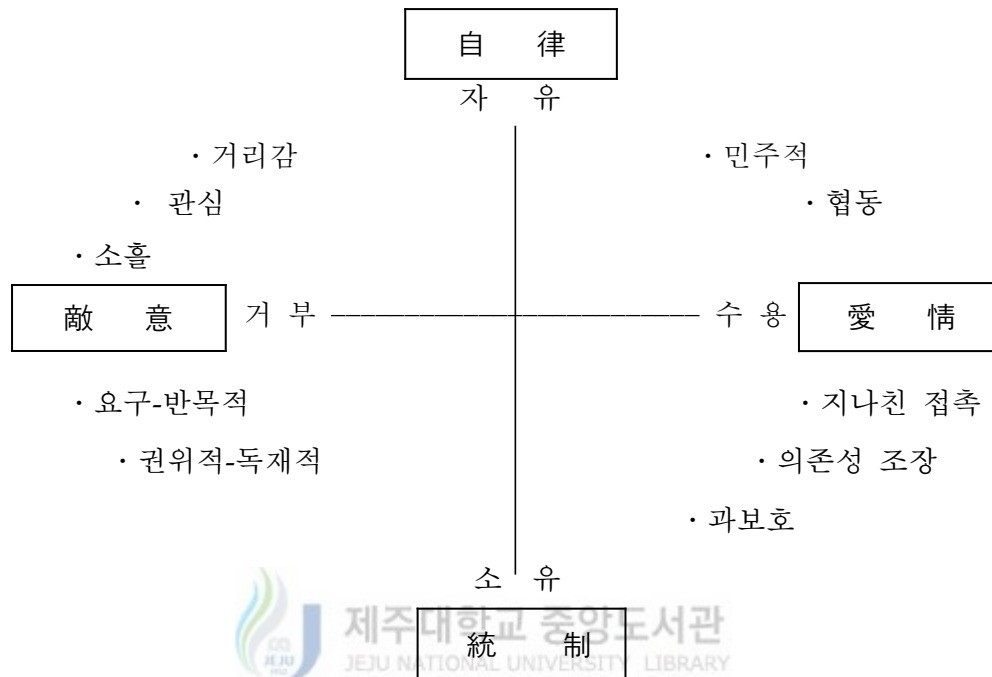
보호형인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보호하고, 아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서 활발한 교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립되기 쉽다. 책임감이 약하고 일에 대한 뒤처리가 잘 안되며 때로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인내력이 결여되기도 하고 심신 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 이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인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나 협조성이 부족하다.

거부형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의 표출, 벌주기, 또는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들은 애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반항, 공격적 행동, 거짓말, 도둑질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와 정신적·육체적 발달의 지연, 신경과민 부적응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지만,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힘입었으며 임상사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반하여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

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변인과 대립되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치를 원형상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Schaefer의 아동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김영숙, 1988. 재인용)

그림에서와 같이 Schaefer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대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적의-자율 사이의 방임형과 애정-통제 사이의 익애형이 대조를 이룬다(오성심, 이종승, 198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대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혹은 기대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으나, 양

육태도를 몇 개의 양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에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유형화한 것을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Baumrind(1967)는 양육태도 유형을 권위주의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 그리고 민주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권위적 태도란 부모의 태도를 규칙이나 논리적인 설명 없이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는 태도라 한다. 또한 민주적 태도는 자율성을 주되 이치와 합리적인 설명으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태도를 말한다(Mussen, 1979).

Becker(1964)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온정-적대(warm-hostility), 허용-제약(permissiveness-restrictiveness), 지나친 관심-침착한 방관(anxious-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의 세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에서 지나친 관심-침착한 방관 차원은 정서적 관여 및 정서 표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온정-적대 차원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중첩된 가능성이 엇보인다고 할 수 있다.

Rosen (1964)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관심과 무관심, 지배와 복종, 민주와 독재, 수용과 거부 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Heiblum, Helen, Samuel 및 Harrel 등(1966)은 자녀 훈련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낮은 통제와 많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긍정적, 수용적 태도이고, 낮은 통제와 적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형태이며, 높은 통제와 적은 애정을 주는 형태는 거절적 형태로 분류하였다.

Buss와 Plomin(1975)은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결정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들의 기질(temperament)과 깊이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부모가 지니는 공포, 또는 공포심을 가진 부모는 육아에 자신이 없으며, 불안과 근심이 따르고 그것이 자녀에 대한 통제에 암시를 주고 자녀의 통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통제하는 바와 같은 과소 통제나 과잉

통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성미가 급한 부모도 자녀에게 분노를 나타내 거부나 적개심으로써 전달된다는 것이다. 또 충동적인 부모의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일치 현상을 나타내고 변하기 쉽다. 즉 자율적이었다가 통제하고, 애정적이었다가 거부적이 되는 바와 같은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육태도를 분류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되고 있는 것이 Schaefer(1959)의 분류 유형인 애정-거부, 자율-통제인데 이와 같이 분류하는 가정에 대해 Kinstler(1961), Mussen(1956), Conger(1956), & Kagan(1969) 등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김영숙(1988)은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요약하고 있다.

애정-자율적인 태도는 양육태도로서 가장 권고할 만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한다.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로서 애정적-자율적 가정에서의 유아보다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거부적-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부모의 태도로 이러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와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기정(1984)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존중·격려·긍정적 기대·훈육의 일관성 등의 양육태도는 자아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며, 무관

심·무시·비난·과소평가·훈육의 비일관성 등의 양육태도는 자아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양육태도의 유형들은 한 두가지 기본적인 차원에서 용어상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몇 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유사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부모-학생간의 심리적 관계 즉 학생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아이론가들에 의하여 주장된 자아개념의 고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일치-불일치의 네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1> 부모 양육태도 구성내용

태도영역	성장 촉진적 태도	성장 억제적 태도
수용-거부	수용 :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한다.	거부 :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한다.
자율-통제	자율 :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통제 :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한다.
비과잉-과잉	비과잉 :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만 기대하지 않는다.	과잉 : 항상 성공하기만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한다.
부모간 태도	일치 : 부모간에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한다.	불일치 : 부모간에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다.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유형과 특징

아동은 여러 형태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적응 행동과 관련하여 볼 때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의 개념은 모호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서란 유기체가 내적, 외적 자극을 받았을 때 갖는 희, 노, 애 락 등과 같은 쾌, 불쾌를 수반하는 의식상태를 말한다. 정서는 비교적 심한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요 인격형성의 주요 특질로서,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본다(강승후,1991).

그런데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욕구의 추구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체적, 생리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은 행동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행동은 반사적인 행동과 유목적적인 행동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유목적적인 행동이란 욕구추구를 위한 동기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욕구만족을 목표로 하여 그 욕구에서 생긴 긴장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인 것이다(임형진, 이시용, 1990).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지연되기도 하고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유기체가 자기의 욕구와 환경사이에 조화를 구하여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적응(adjustment)이라고 하며, 이런 과정에서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은 감정이 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자극된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달면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정서 부적응 행동이라 하는 것이다(김형호, 1978).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에는 학자마다 약간의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Dunn(1963)은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신병, 생리·심리학적인 장애, 신경증, 성격장애, 일시적인 장애로 분류하였고, 한편 정서적 부적응아를 크게 정서 불안정아와 사회 부적응아로 분류하면서 정서적 불안정아는 정서적 불안으로 인하여 일반 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없으며 공격이나 퇴행의 행동을 보이며 심리적인 압축으로 자기에게 기대된 것을 할 수 없는 아동이라 하고, 사회적 부적응아는 사회의 가치관과 법칙을 무시하고 그 대신 친구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만성적인 소년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Kirt(1972)에 의하면 정서 불안정아를 자신의 성장과 함께 발달면에서 이탈된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자로 보고 사회적 부적응아는 타인에게 방해와 불안의 요인이 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아라고 분류,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 차원에서 같은 견해를 지니는 입장으로서는 Barbe(1963)는 정서 불안정은 반사회적이 아닌 신경증, 심리학적인 면이 포함된다고 봄으로서 이것은 심리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을 포함하여, 이는 사회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Bower(1969)는 정서 부적응을 다음의 특성을 어느 기간동안 하나나 둘 이상 나타내는 행동이라 하였다.

즉 지적요인, 감각적 요인과 건강요인은 정상인데도 학습장애가 있으며, 친구나 교사와의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이루거나 지속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동자신이 불행이나 억압감을 느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며, 신체장애, 고통이나 두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문제에다 관련시키려고 한다면서, 정서 부적응을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Hewett와 Jenkins(1945)가 분류한 비 사회화된 공격적 아동, 사회화된 공격적 아동, 과잉억제 아동 등의 세 가지가 있고 이러한 아동들은 각기 다른 가정 환경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즉 비 사회화된 공격적 아동은 유아기에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 결손 가정에서 나오게 되고, 사회화된 공격적 아동은 유아기에 가정에서 안정감 있는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에 거절을 당하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과잉억제의 아동은 사회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과잉 방어적인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박수정,1998).

한편 Reinert(1976)는 많은 교수들의 경험과 학교에서의 관찰을 통해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폭발하는 행동 즉 때리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둘째로 퇴행하는 행동으로 침묵, 손가락 빨기, 제한적 행동을 한다.

셋째, 방어적인 행동으로는 거짓말, 숙제 안하기이며, 넷째, 미성숙한 행동 즉 자폐증적인 행동, 현실성 결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 특성을 몇 가지 분류들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Quay(1972)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 특성을 교사와 부모에 의한 행동 평정, 아동의 생육사 특성, 질문지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근거로 하여 행동장애, 성격장애, 미성숙, 비행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특성들은 따로 따로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때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Achenbach(1978)도 아동의 행동을 경험적인 배경에 두고 문항을 작성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남녀별, 연령별로 분류하였다. 분류내용은 성별, 연령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분열적 행동, 우울행동, 언어부족 행동, 강박행동, 사회적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의 행동 유형들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의 행동 특성들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행동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분류에 있어 학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아동들이 몇 가지 행동들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정서적 부적응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란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환경의 영향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서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현대 가족형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역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핵 단위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및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에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핵가족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사회성 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우도록 하는 아동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과되어지기 때문이다(이효재, 1974).

아동이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정·사회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정 환경은 출생 시부터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정 환경 중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전순, 1984).

그리고 가정 내에 안주하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로 차츰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함으로써 자녀양육의 문제를 공동 관심사로 나누어 말지 않으면 안되도록 현대 가정생활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이희자·정영숙, 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우리 나라는 가부장제도와 유교사상의 영향아래 아버지가 모든 권위의 상징이며 사회규범이 총체로 존재하면서 자녀의 훈육과 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끼칠 영향은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좋은 정서적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며 끊임없이 거부, 무시, 적대시 당하면 불건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며 지나치게 아동을 간섭하고 어린이 취급하면 아동은 부모를 기피한다고 했다(위영희, 1976).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로 Bigner(1979), Hurlock(1968), Elder(1946)는 전통적 태도와 발달적 태도를 유사하게 나누었고, 우리나라의 유영주(1981)는 전통적·전체적인 양육태도와 민주적·동료적인 양육태도로 나누었다.

Hurlock(1968)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전통적인 태도와 발달적 태도로 보고, 전통적 개념으로는 가정의 대표자이며, 부양자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방법은 훈육에 의한 가르침보다는 행동에 의한 무의도적인 가르침으로 주로 하류층 아버지 상이다. 반면 발달적 개념의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행동하고 아동의 발달을 도우며,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친구가 되어주며 아동을 이해하도록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개념은 중상류층의 아버지가 갖는 개념이다.

Elder(1946)의 견해는 아버지(Good Father)의 전통적 태도 개념은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크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받아들이고, 발달적 개념으로서의 아버지 태도는 자아통제의 아동의 자동화 발달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주(1981)는 그의 저서에서 전통적·전체적태도의 아버지와 민주적태

도의 아버지가 있으며, 하류층의 아버지일수록 전통적·권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중 Bigner(1979)에 의한 아버지의 전통적 양육태도는 다소 엄격하고 훈육적이며, 권위적이지만 발달적 태도는 융통성 있는 역할 수행의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역할 내에서의 개인적 발달을 중시한다. 즉 발달적 태도는 부모 자신의 개인적 발달은 물론 자녀의 개인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기 통제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전통적 태도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전통적 태도와 발달적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Bigner, 1979), 전통적 태도는 자녀에게 목적을 설정해주며,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무엇이 자녀에게 유익한 가를 인식하며, 항상 정당하고 강한 인간으로 존재한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복종할 것을 기대하며,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된다.

발달적 태도는 자율적 행동을 강조하며, 자녀 및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녀 및 자신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자녀의 성숙한 행동을 장려하며,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Baldwin, Watson, Clauser는 아동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자극하는 태도이며,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사회성, 지도력, 책임감이 높고 독립적이며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Hollstein(1972)은 따뜻하고 양육적이며 도덕적으로 성숙한 양육태도를 지닌 아버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성숙한 소년으로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였다.(차은영, 1987, 재인용)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이근후 등(1980)은 모성의 과잉보호(maternal overprotection)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익애형 과보호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엇이든 들어주고 행동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상 걱정하고 자식이 하자면 데로 했을 때, 이런 환경의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억제를 못하고 과잉 공격형이 되어서, 행동장애로 발전할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지배형 과보호는 부모가 아이들을 과잉통제하고 일일

이 간섭하고 명령하여 그 아이들은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피동적이 되고 나중에 자신이 없고 위축된 아이들로 발전하고, 그 안에는 억압된 분노 및 증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수동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수가 많다고 했다.

한편 이원영(1983)은 어머니들이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아버지의 직업, 유아교육 기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애정적인 태도와 함께 거부적, 의존성 조장, 통제적인 경향도 갖고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거부-통제의 정도가 낮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자녀들은 신체적, 지적,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던 반면, 사회성, 자조성은 낮았다고 하였다.

Alford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본질은 애정의 두 가지에 불과하며, 이 두 가지가 짝 지워지는 강도에 따라서 4가지 즉 보호형: 높은 통제와 높은 애정, 거부형: 높은 통제와 낮은 애정, 무시형: 낮은 통제와 낮은 애정, 수용형: 낮은 통제와 높은 애정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노, 1979,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통제된 성격의 영향 아래 성장한 아동은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지만 반면 부모의 그릇된 태도와 충동적인 성격의 영향 속에 성장한 아동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과 행동을 형성한다. 또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서로 다른 양육태도가 자녀들에게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윤희상(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라는 논문에서 부와 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차이에서, 모의 인식과 자녀의 양육태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부모의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차이, 부모와 자녀의 세대적 차이로 인한 격차로 보았으며, 자녀의 상대적 태도 평가에는 모는 부모보다 아들에 대해서 보호와 복종에서 더 거부적이고 딸에 대해서도 지

배, 보호, 모순, 불일치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일치와 불일치에 있어서, 김재은(1974)은 양육태도의 불일치란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 첫째가 “부모간 불일치형”이고, 둘째는 부 또는 모의 훈육방법 및 철학의 일관성 결여, 즉 “부모 내 불일치형”이며, 셋째는 “혼합형”을 들고 있다.

양육은 정확한 가치판단 위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서로의 가치기준이 같지 않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는 이중가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일치의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행동에 긍정,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uch(1949)는 자녀들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함께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의 욕망은 부모의 엄격한 가정 훈육방법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주는 벌이 빈도가 지나치게 잦은 경우에는 욕구불만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고 했다. 이 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순이 없어야 함을 일컫는 것으로, 부모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lg(1955)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한쪽 부모의 양육방법을 다른 쪽 부모가 지지하지 않거나 비평한다면, 이 부모들은 양육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강승후, 1991, 재인용)

또한 Mussen과 Conger(1956)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협력 부족에서 오는 부모간의 긴장 그리고 지배 및 복종의 불일치는 아동의 부적응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Coe(1972)는 부모의 행동이 불일치하면 할수록, 아동은 그만큼 더 갈등과 욕구불만, 부적응 등으로 고통을 받기 쉽다고 했으며, Perking(1974)은 부모간의 불일치는 아동의 성격발달에 해로우며, 아동으로부터 자신의 행할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安鎭(1979)은 가정에서의 교육방법이 부모사이에 일관성과 일치성을 이룰 때, 자녀들은 양친을 존경하게 되고 가정에 대해 애정을 쏟으므로 바람직한 정의적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의 일치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전경숙(1980)은 지역과 교육수준을 들고 있다. 즉 도시의 부모와 고학력 부모는 긍정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의 부모와 저 학력 부모는 부정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불일치형의 부모에서 부모의 태도가 불일치한 것으로 즉 아버지가 거부형인데 반해 어머니는 반 보호형의 경우 아동은 심한 반항형이 된다. 그러나 표면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결핍되기도 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엄격형이고 아버지가 익애적인 경우는 남아는 여성적이 되고 여아는 남성적이 되기 쉽고 또 동성애에 빠지기 쉽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하나의 뚜렷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주요한 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 상호간 자녀에 대한 이해의 일치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관성 있게 자녀양육방식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부-자 관계에서의 모의 역할, 모-자 관계에서의 부의 역할을 중시하여 자녀양육에 일치를 기하고, 또 그 일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하위 요인들과의 관련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제주도내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표집대상

위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 표집은, 아버지 어머니는 연령별 및 학력별, 아동은 성별, 학년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 제주시 3개교, 서귀포시 2개교, 북제주군 2개교, 남제주군 2개교, 모두 9개교에서, 각 학교당 5·6학년 한 학급씩 표집하여, 모두 18학급 아동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아동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도, 설문지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중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나, 아버지 어머니 아동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아버지, 어머니, 아동이 작성하여 통합한 653부만이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Ⅲ-1> 응답자 현황

구 분	변 인		사례수(%)
아버지	연 령	30대 이하	155(23.7)
		40대	467(71.5)
		50대 이상	31(4.7)
	학 령	중 졸	93(14.3)
		고 졸	357(54.8)
		대 졸	202(31.0)
어머니	연 령	30대 이하	383(58.7)
		40대	258(39.5)
		50대 이상	12(1.8)
	학 령	중 졸	168(25.8)
		고 졸	397(60.9)
		대 졸	87(13.3)
아 동	성 별	남	299(45.8)
		여	354(54.2)
	학년별	5학년	292(44.7)
		6학년	361(55.3)
계			653(100.0)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김기정(1984)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이다. 이 검사는 자아이론가들에 의하여 주장된 자아개념의 고양 및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일치-불일치의 4영역을 하위영역으로 하고, 이를 각 태도 영역별 11문항씩 33문항을 채택하였다. 이 설문지의 평가방법은 아주 그런 편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이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용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구는 각 문항마다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의 태도를 구분하여 반응하게 함으로서 채점 결과는 부-모간의 태도를 불일치 정도는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채점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의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사도구의 구성내용과 관련문항의 번호를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태도영역	성장촉진적	성장억제적	문항번호	문항수	α계수
수용-거부	수용	거부	1,4,7,10,13,16,19 22,25,28,31	11	.77
자율-통제	자율	통제	2,5,6,8,11,14,23, 26,29,32	11	.55
성취압력	비과잉	과잉	3,9,12,15,18,20,2 1,24,27,30,33	11	.83
부모간 태도	일치	불일치	1~33	33	.78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척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측정도구로서는 Achenbach(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참고로, 김영숙(1988)이 제작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도구를 채택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가지 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각 요인 별 10문항씩 50문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지를 부모와 아동자신 모두에게 나누어 측정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주 그런편이다, 약간 그런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 하고, 아동용 질문지는 부모용 질문지를 아동이 이해하고 측정하기 쉽도록 고쳤고 평가방법은 그렇다, 아니다 로 응답하게 하여 2점,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그리고 부모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의 각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점수가 되며 각 요인마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60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검사도구의 구성내용과 관련문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 3> 검사도구의 행동요인과 관련문항 번호

정서적 부적응 행동요인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문항번호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α 계수	.60	.64	.61	.54	.65

3. 자료처리

연구 대상자의 부-모간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간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간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부모간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얻어진 4개 영역 33개 문항을 부·모간, 아버지와 자녀간, 어머니와 자녀간 정서적 부적응 행동(50문항)의 차이를 성별, 학년별로 알아보았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검증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 IV-1>은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와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 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정서적 부적응	부의 양육태도	수용		거부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남아	97	1.49(1.43)	99	2.04(1.86)	-2.30 *
	여아	122	2.00(1.80)	147	2.25(1.86)	-1.11
과잉행동	남아	97	3.35(2.28)	99	3.98(2.21)	-1.99 *
	여아	122	3.36(2.21)	148	3.81(2.13)	-1.70
공격행동	남아	97	1.53(1.56)	99	2.35(1.98)	-3.20 **
	여아	121	1.69(1.61)	147	2.14(1.61)	-2.30 *
퇴행행동	남아	97	2.61(1.90)	99	2.89(1.94)	-1.02
	여아	122	3.23(1.92)	147	3.27(1.87)	-0.18
강박행동	남아	97	3.67(2.42)	98	4.01(2.35)	-0.99
	여아	122	4.95(2.32)	148	4.59(2.29)	1.26

(* : p<.05, ** : p<.01)

<표 IV-1>에서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남아는

위축행동($t=-2.30, p<.05$), 과잉행동($t=-1.99, p<.05$), 공격행동($t=-3.20,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여아는 공격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30, p<.05$), 나머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아버지에 비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남아가 더 위축행동 및 과잉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는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가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표 IV-2> 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의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남아	84	1.53(1.59)	108	2.09(1.86)	-2.18 *
	여아	136	2.05(1.74)	113	2.08(1.74)	-0.13
과잉행동	남아	83	3.55(2.15)	107	3.68(2.33)	-0.39
	여아	136	3.29(2.11)	114	3.70(2.22)	-1.48
공격행동	남아	84	1.52(1.54)	107	2.15(2.07)	-2.34 *
	여아	136	1.81(1.55)	114	2.05(1.72)	-1.14
퇴행행동	남아	84	2.89(1.89)	108	2.64(1.98)	0.86
	여아	136	3.14(1.99)	113	3.39(1.88)	-1.01
강박행동	남아	84	3.73(2.31)	108	3.89(2.22)	-0.41
	여아	136	4.77(2.21)	114	4.99(2.29)	-0.77

(* : $p<.05$)

<표 IV-2>에서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라 남아는 위축행동 및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2.18, p<.05$; $t=-2.34, p<.05$), 과잉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아는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에 비해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남아는 더 위축행동 및 공격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3>은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3> 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의 양육태도		비과잉압력		과잉압력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남아	88	1.70(1.63)	122	1.70(1.77)	-0.00
	여아	130	2.26(1.87)	101	2.12(1.74)	0.58
과잉행동	남아	88	3.27(2.15)	121	3.54(2.28)	-0.87
	여아	130	3.46(2.15)	101	3.76(2.31)	-1.02
공격행동	남아	88	1.50(1.54)	121	1.90(1.93)	-1.64
	여아	130	1.85(1.54)	100	2.07(1.94)	-0.91
퇴행행동	남아	88	2.61(1.79)	122	2.68(1.89)	-0.29
	여아	130	3.42(1.94)	101	3.19(1.72)	0.92
강박행동	남아	88	3.73(2.47)	122	3.82(2.17)	-0.28
	여아	130	4.82(2.40)	101	4.62(2.24)	0.64

<표 IV-3>에서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라 아동은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는 아버지의 일치불일치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4>에서 아버지의 일치불일치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라 남아는 위축행동 및 과잉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2.01, p<.05$);

t=-2.75, p<.01), 과잉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아는 아버지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일치적 태도를 보였을 때에 비해 불일치적 태도를 보였을 때 남아는 더 위축행동 및 공격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부의 일치불일치적 양육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양육태도		일치		불일치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남아	95	1.49(1.53)	104	1.99(1.92)	-2.01 *
	여아	130	2.08(1.77)	113	2.28(1.83)	-0.86
위축행동	남아	95	3.33(2.21)	103	3.75(2.29)	-1.31
	여아	130	3.31(2.25)	113	3.56(2.13)	-0.89
과잉행동	남아	95	1.41(1.63)	103	2.13(2.06)	-2.75 **
	여아	130	1.81(1.60)	112	2.08(1.71)	-1.28
공격행동	남아	95	2.63(1.90)	104	2.86(2.02)	-0.84
	여아	130	3.29(1.99)	113	3.23(1.75)	0.22
퇴행행동	남아	95	3.56(2.54)	103	3.93(2.19)	-1.08
	여아	130	4.78(2.26)	113	4.61(2.35)	0.59
강박행동	남아	95	2.63(1.90)	104	2.86(2.02)	-0.84
	여아	130	3.29(1.99)	113	3.23(1.75)	0.22

(* : p<.05, ** : p<.01)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 IV-5>는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5>에서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서는 여아가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t=-2.03, p<.05; t=-2.41, p<.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아는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IV-5> 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수용		거부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남아	96	1.85(1.70)	114	1.64(1.73)	0.86
	여아	131	2.02(1.87)	123	2.22(1.76)	0.89
위축행동	남아	95	3.46(2.20)	114	3.36(2.17)	0.31
	여아	131	3.40(2.15)	123	3.95(2.19)	-2.03 *
과잉행동	남아	95	1.62(1.56)	114	1.76(1.85)	-0.58
	여아	131	1.74(1.49)	123	2.24(1.78)	-2.41 *
공격행동	남아	96	2.81(1.85)	114	2.56(1.88)	0.97
	여아	131	3.12(1.97)	123	3.43(1.86)	-1.25
퇴행행동	남아	96	3.90(2.22)	114	3.46(2.07)	1.49
	여아	131	4.72(2.35)	123	4.92(2.36)	-0.68

(* : p<.05)

<표 IV-6>은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6> 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남아	112	1.66(1.68)	119	1.79(1.77)	-0.56
	여아	164	2.06(1.83)	109	2.08(1.52)	-0.11
위축행동	남아	112	3.26(2.39)	118	3.76(2.17)	-1.64
	여아	164	3.36(2.13)	109	4.05(2.32)	-2.52 *
과잉행동	남아	112	1.61(1.75)	119	2.08(1.95)	-1.91
	여아	164	1.70(1.56)	109	2.33(1.84)	-2.99 **
공격행동	남아	112	2.70(2.00)	119	2.76(1.83)	-0.24
	여아	164	3.11(1.94)	109	3.44(1.86)	-1.37
퇴행행동	남아	112	3.75(2.34)	118	3.85(2.20)	-0.35
	여아	164	4.59(2.39)	109	4.81(2.21)	-0.76

(* : p<.05, ** : p<.01)

<표 IV-6>에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는 여아의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 때보다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때,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2.52$, $p<.05$; $t=-2.99$, $p<.01$),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7> 모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비과잉압력		과잉압력		t
		N	$\bar{X}(SD)$	N	$\bar{X}(SD)$	
공격성	남아	97	1.79(1.67)	115	1.89(1.86)	-0.42
	여아	139	2.25(1.84)	113	2.12(1.79)	0.55
위축행동	남아	96	3.19(2.02)	114	4.01(2.36)	-2.67 **
	여아	139	3.53(2.21)	113	3.41(2.13)	0.42
과잉행동	남아	97	1.43(1.55)	114	2.08(1.98)	-2.69 **
	여아	138	2.04(1.77)	112	1.82(1.74)	0.99
공격행동	남아	97	2.73(1.96)	115	2.81(1.91)	-0.32
	여아	139	3.35(1.99)	113	3.35(1.87)	0.02
퇴행행동	남아	97	3.84(2.43)	115	3.84(2.34)	0.01
	여아	139	4.89(2.40)	113	4.59(2.14)	1.06
강박행동	남아	97	3.84(2.43)	115	3.84(2.34)	0.01
	여아	139	4.89(2.40)	113	4.59(2.14)	1.06

(** : $p<.01$)

<표 IV-7>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라 남아는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2.67$, $p<.01$; $t=-2.69$, $p<.01$),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아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 IV-8>은 어머니의 일치-불일치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8> 모의 일치-불일치 태도에 따른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공격성		모의 양육태도		일치		불일치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남아	98	1.69(1.71)	118	1.78(1.79)			-0.39
	여아	144	1.96(1.74)	118	2.15(1.66)			-0.92
과잉행동	남아	98	3.37(2.07)	118	3.89(2.34)			-1.71
	여아	144	3.24(2.16)	119	3.60(2.20)			-1.34
공격행동	남아	98	1.51(1.58)	118	2.12(1.95)			-2.56 *
	여아	143	1.74(1.55)	118	2.03(1.80)			-1.37
퇴행행동	남아	98	2.74(1.86)	118	2.78(1.81)			-0.17
	여아	144	3.02(1.96)	119	3.26(1.82)			-0.99
강박행동	남아	98	3.72(2.31)	118	3.66(2.14)			0.18
	여아	144	4.59(2.43)	119	4.73(2.23)			-0.48

(* : $p < .05$)

<표 IV-8>에서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가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t = -2.56, p < .05$), 여아는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 IV-9>는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9>에서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5학년 아동은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t=-4.22, p<.01$), 나머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6학년 아동은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수용적 태도를 보였을 때에 비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5학년 아동은 더 공격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9> 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의 양육태도		수용		거부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5학년	100	1.86(1.75)	104	2.25(1.82)	-1.56
	6학년	119	1.71(1.59)	142	2.11(1.89)	-1.82
과잉행동	5학년	100	3.37(2.20)	105	3.94(2.19)	-1.87
	6학년	119	3.34(2.28)	142	3.83(2.14)	-1.80
공격행동	5학년	100	1.49(1.35)	104	2.39(1.69)	-4.22 **
	6학년	118	1.73(1.76)	142	2.11(1.82)	-1.68
퇴행행동	5학년	100	3.06(1.85)	104	3.28(1.83)	-0.88
	6학년	119	2.88(2.00)	142	3.00(1.96)	-0.51
강박행동	5학년	100	4.21(2.44)	104	4.40(2.26)	-0.58
	6학년	119	4.52(2.45)	142	4.33(2.38)	0.66

(** : $p<.01$)

<표 IV-10>은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6학년에서 보다 5학년에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차이($t=-4.22, p<.01$)를 나타내고 있어 아버지의 수용-자율적 태도의 경우와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6학년보다 5학년의 경우, 아버지가 자율적 태도를 보일 때가 통제적 태도를 보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공격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부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위축행동	5학년	94	1.80(1.75)	95	2.27(1.64)	-1.88
	6학년	126	1.89(1.67)	126	1.95(1.90)	-0.25	
과잉행동	5학년	93	3.62(2.16)	95	3.77(2.33)	-0.47	
	6학년	126	3.22(2.10)	126	3.62(2.23)	-1.48	
공격행동	5학년	94	1.55(1.33)	95	2.33(1.87)	-3.31 **	
	6학년	126	1.81(1.69)	126	1.92(1.90)	-0.49	
퇴행행동	5학년	94	3.22(1.87)	95	3.25(1.90)	-0.11	
	6학년	126	2.92(2.00)	126	2.86(2.00)	0.22	
강박행동	5학년	94	4.24(2.37)	96	4.41(2.11)	-0.53	
	6학년	126	4.49(2.25)	126	4.49(2.47)	0.00	

(** : p<.01)

<표 IV-11>은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와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1> 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양육태도		비과잉압력		과잉압력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위축행동	5학년	99	2.13(1.80)	97	1.80(1.62)	1.33
	6학년	119	2.96(1.79)	126	1.96(1.88)	-0.01	
과잉행동	5학년	99	3.82(2.36)	96	3.46(2.19)	1.10	
	6학년	119	3.01(1.88)	126	3.77(2.37)	-2.77 **	
공격행동	5학년	99	1.80(1.53)	95	1.96(1.76)	-0.68	
	6학년	119	1.63(1.56)	126	1.99(2.06)	-1.55	
퇴행행동	5학년	99	3.25(1.85)	97	2.83(1.79)	1.60	
	6학년	119	2.96(1.97)	126	2.98(1.86)	-0.07	
강박행동	5학년	99	4.60(2.56)	97	4.05(2.03)	1.68	
	6학년	119	4.20(2.40)	126	4.29(2.38)	-0.30	

(** : p<.01)

앞의 <표 IV-11>에서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는 과잉행동에서 6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t=-2.77, p<.0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버지의 비과잉압력적 태도일 때 과잉압력적 태도일 때 보다 6학년이 유의미하게 과잉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는 아버지의 일치불일치적 양육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일치불일치 태도에서는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학년이 과잉행동($t=-0.19,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행동($t=-3.02, p<.01$)에서는 5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2> 부의 일치적 양육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부양태도	정서적 부적응	일치		비일치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5학년	98	1.70(1.68)	99	2.09(1.79)	-1.56
	6학년	127	1.93(1.70)	118	2.18(1.95)	-1.06
과잉행동	5학년	98	3.46(2.36)	98	3.53(2.21)	-0.19
	6학년	127	3.21(2.12)	118	3.76(2.21)	-1.98 *
공격행동	5학년	98	1.50(1.48)	97	2.20(1.77)	-3.02 **
	6학년	127	1.75(1.72)	118	2.03(1.97)	-1.17
퇴행행동	5학년	98	3.05(1.87)	99	3.05(1.84)	0.00
	6학년	127	2.98(2.06)	118	3.06(1.93)	-0.33
강박행동	5학년	98	4.16(2.58)	98	4.13(2.12)	0.09
	6학년	127	4.35(2.36)	118	4.41(2.43)	-0.20

(* : $p<.05$, ** : $p<.01$)

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 IV-13>는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3>에서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6학년 아동은 과잉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t=-2.67, p<.01$) 나머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를 보였을 때에 비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6학년 아동은 더 과잉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13> 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정서적 부적응		모의 양육태도		수용		거부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5학년	99	1.95(1.72)	111	1.93(1.82)	0.09		
	6학년	128	1.94(1.87)	126	1.96(1.73)	-0.07		
과잉행동	5학년	98	3.88(2.26)	111	3.54(2.16)	1.13		
	6학년	129	3.07(2.03)	126	3.79(2.23)	-2.67 **		
공격행동	5학년	98	1.75(1.57)	111	2.09(1.73)	-1.46		
	6학년	128	1.64(1.48)	126	1.94(1.91)	-1.38		
퇴행행동	5학년	99	3.05(1.90)	111	3.20(1.90)	-0.59		
	6학년	128	2.95(1.95)	126	2.84(1.91)	0.46		
강박행동	5학년	99	4.49(2.33)	111	4.07(2.26)	1.33		
	6학년	128	4.28(2.33)	126	4.35(2.40)	-0.23		

(** : $p<.01$)

<표 IV-14>는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4>에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라 6학년 아동은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97, p<.01$; $t=-2.65, p<.05$)

즉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를 보일 때에 비해 통제적 태도를 보일 때 6학

년 아동은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을 더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5학년 아동도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t=-1.98, p<.05$),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은 5, 6학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 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자율		통제		t
		N	$\bar{X}(SD)$	N	$\bar{X}(SD)$	
위축행동	5학년	120	2.00(1.81)	104	1.91(1.56)	0.38
	6학년	156	1.82(1.76)	124	1.95(1.74)	-0.59
과잉행동	5학년	120	3.65(2.33)	103	3.67(2.37)	-0.07
	6학년	156	3.07(2.13)	124	4.08(2.13)	-3.97 **
공격행동	5학년	120	1.70(1.63)	104	2.15(1.72)	-1.98 *
	6학년	156	1.64(1.65)	124	2.24(2.05)	-2.65 **
퇴행행동	5학년	120	3.17(1.85)	104	3.13(1.86)	0.16
	6학년	156	2.77(2.05)	124	3.04(1.89)	-1.14
강박행동	5학년	120	4.29(2.29)	103	4.33(2.36)	-0.15
	6학년	156	4.22(2.49)	124	4.29(2.17)	-0.26

(* : $p<.05$, ** : $p<.01$)

<표 IV-15>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부적응 행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표 15>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라 6학년 아동은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t=-2.80, p<.01$; $t=-2.36, p<.05$), 나머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5학년 아동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가 비과잉적 태도를 보였을 때에 비해 과잉압력적 태도를

보였을 때 6학년 아동은 더욱 과잉행동, 공격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모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비과잉압력		과잉압력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5학년	102	2.08(1.78)	104	2.00(1.69)	0.32
	6학년	134	2.04(1.80)	124	2.00(1.94)	0.16
위축행동	5학년	101	3.83(2.37)	103	3.58(2.07)	0.80
	6학년	134	3.06(1.89)	124	3.83(2.42)	-2.80 **
과잉행동	5학년	102	2.10(1.77)	102	1.77(1.53)	1.43
	6학년	133	1.54(1.62)	124	2.10(2.09)	-2.36 *
공격행동	5학년	102	3.36(1.85)	104	3.11(1.82)	0.96
	6학년	134	2.90(2.09)	124	3.05(1.98)	-0.60
퇴행행동	5학년	102	4.60(2.52)	104	4.16(2.08)	1.38
	6학년	134	4.35(2.42)	124	4.25(2.42)	0.33
강박행동	5학년	102	4.60(2.52)	104	4.16(2.08)	1.38
	6학년	134	4.35(2.42)	124	4.25(2.42)	0.33

(* : $p < .05$, ** : $p < .01$)

<표 IV-16>은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6>에서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라 6학년이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 = -3.79$, $p < .01$; $t = -2.57$, $p < .01$),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학년은 아버지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라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6> 모의 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모의 양육태도		일치		불일치		t	
		N	$\bar{X}(SD)$	N	$\bar{X}(SD)$		
정서적 부적응	위축행동	5학년	97	1.89(1.69)	111	1.94(1.65)	-0.21
	6학년	145	1.82(1.76)	126	2.00(1.81)	-0.78	
과잉행동	5학년	97	3.61(2.23)	111	3.36(2.14)	0.82	
	6학년	145	3.08(2.02)	126	4.08(2.33)	-3.79 **	
공격행동	5학년	97	1.72(1.55)	110	1.96(1.66)	-1.08	
	6학년	144	1.60(1.58)	126	2.18(2.04)	-2.57 *	
퇴행행동	5학년	97	3.14(1.81)	111	2.89(1.77)	0.61	
	6학년	145	2.75(1.98)	126	3.05(1.89)	-1.26	
강박행동	5학년	97	4.40(2.43)	111	4.03(2.15)	1.15	
	6학년	145	4.13(2.41)	126	4.34(2.33)	-0.75	

(* : p<.05, ** : p<.01)

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표 IV-17>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표 IV-17> 아버지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정서적 부적응	부 양육태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수용-거부	0.0519	0.0766 *	0.1209 **	0.0242	0.0167
자율-통제	0.0260	-0.0021	0.0542	0.0087	0.0505
비과잉-과잉	-0.0211	-0.0250	-0.0015	-0.0345	-0.0502
일치-불일치	-0.0211	-0.0250	-0.0015	-0.0345	-0.0502

(* : p<.05, ** : p<.01)

<표 IV-17>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는 과잉행동, 공격행동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r=.0766, p<.05; r=.1209, p<.01$), 그 상관계수가 매우 작았다.

<표 IV-1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정서적 부적응 부 양육태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수용-거부	-0.0206	0.0018	0.0174	-0.0219	-0.0463
자율-통제	-0.0506	0.0614	0.0872 *	-0.0025	-0.0426
비과잉-과잉	0.0452	0.0077	0.0064	0.0472	-0.0277
일치-불일치	0.0452	0.0077	0.0064	0.0472	-0.0277

(* : $p<.05$)

<표 IV-18>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는 공격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r=.0872, p<.05$), 그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다.

6)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차이 검증

<표 IV-19>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19>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와 성취압력적 태도 및 일치불일치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8.49, p<.01; t=3.86, p<.01; t=2.08, p<.01$).

따라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수용적인 태도와, 비과잉-성취압력적 태도 그리고 일치적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19>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검증

양육태도	부모	부	모	t
		$\bar{X}(SD)$	$\bar{X}(SD)$	
수용-거부		31.25(5.19)	33.28(5.11)	-8.49 **
자율-통제		34.57(3.91)	34.53(3.69)	0.19
성취압력		33.26(5.83)	32.28(5.78)	3.86 **
일치-불일치		97.29(10.01)	98.25(9.69)	-2.08 **

(** : $p < .01$)

7)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표 IV-20>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20>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

정서적 부적응	부 양육태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수용-거부	-0.0914 *	-0.0095	-0.0556	-0.0134	-0.0454
자율-통제	-0.0279	0.0734 *	0.0360	0.0379	0.0218
비과잉-과잉	-0.0114	0.0183	-0.0154	0.0173	0.0091
일치-불일치	-0.0572	0.0379	-0.0198	0.0186	-0.0114

(* : $p < .05$)

<표 IV-20>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차는 위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 = -.0914$, $p < .05$), 자율-통제적 태도의 차이는 과잉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0.0734$, $p < .05$). 그러나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의 특징과 이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가?
- 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가?
- 3) 부모 양육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 5)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9개교의 아버지, 어머니, 아동 등 각각 7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 수는 모두 1959명(아버지:653명, 어머니:653명, 남학생:299명, 여학생:354명)이다.

본 연구의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일치-불일치의 네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 변인으로는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의 부·모간 양육태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산출을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 또한 부-모간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아들이 위축행동($t=-2.30, p<.05$)과 과잉행동($t=-1.99, p<.05$)에 관련이 있었으며, 공격행동($t=-3.20, p<.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딸의 경우는 공격행동($t=-2.30, p<.05$)에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아들만이 위축행동($t=-2.18, p<.05$)과 공격행동($t=-2.34, p<.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경우에는 아들, 딸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일치불일치 태도에서는, 아들이 위축행동($t=2.01, p<.05$)에 관련을 나타냈고, 공격행동($t=-2.75, p<.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태도에서는 딸의 경우에만 과잉행동($t=-2.03, p<.05$)과 공격행동($t=-2.41, p<.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도 딸의 경우, 과잉행동($t=-2.52, p<.05$)에 관련이 있었으며, 공격행동($t=-2.99, p<.01$)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와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서는, 과잉행동($t=-2.67, p<.01$)과 공격행동($t=-2.69, p<.01$)에 아들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에 따른 성별 부적응 행동에서는 공격행동($t=-2.56$)에서 아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공격행동($t=-4.22, p<.01$)에 5학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또한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에도 공격행동($t=-3.31, p<.01$)에 5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성취압력적 태도에서는 6학년이

과잉행동($t=-2.77, p<.01$)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일치 불일치적 태도에서는 과잉행동($t=-1.98, p<.05$)에 6학년이 관련이 있었고, 공격행동($t=-3.02, p<.01$)과는 5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과잉행동($t=-2.67, p<.01$)에 6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공격행동($t=-1.98, p<.05$)에서 5학년과 관련이 있었으며, 과잉행동($t=-3.97, p<.01$)과 공격행동($t=-2.65, p<.01$)에 6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취압력적 태도에 따른 학년별 부적응 행동에서는 6학년이 과잉행동($t=-2.80, p<.01$)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격행동($t=-2.36, p<.05$)에도 6학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치불일치적 태도에서도 역시 과잉행동($t=-3.79, p<.01$)에 6학년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격행동($t=-2.57, p<.05$)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수용-거부적태도 일 때 과잉행동($r=.0766, p<.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공격행동($r=.1209, p<.01$)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격행동($r=.0872, p<.0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 검증에서는 수용-거부적인 태도와 성취압력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8.49, p<.01$).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유의미하게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성취압력적 태도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3.86, p<.01$). 부모간의 일치불일치적 태도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2.08, p<.01$).

일곱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

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들이 위축행동($r=-.0914$, $p<.05$)과 과잉행동($r=.0734$, $p<.05$)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위축행동이 줄어들고, 자율-통제적 태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과잉행동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아들이 딸에 비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태도인 경우, 남아가 위축행동, 과잉행동, 그리고 공격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아버지의 자율-통제적태도와 일치불일치적 태도에도 남아가 위축행동, 공격행동에 관련이 있고, 성취압력적 태도의 경우는 아들, 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통제적일 때 아들보다 딸에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취압력적 일때는 딸보다 아들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어머니의 일치불일치적 태도인 경우에는 아들이 공격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과잉기대는 남아에게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들에게 과잉기대적 태도를 높게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자녀에게 거부적, 통제적인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수용적, 자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수용적, 자율적 태도로 대해 주고 있어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통제적 태도인 경우 5학년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취압력적 태도인 경우 6학년이 영향을 받고, 일치불일치적 태도인 경우 과잉행동에는 6학년이, 공격행동은 5학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버지의 거부적, 통제적, 불일치적 태도의 경우, 5학년이 부분적으로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6학년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취압력적 태도일 때 부분적으로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년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에서 6학년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통제적 태도, 그리고 성취압력적 태도와 일치불일치적 태도에서 모두 6학년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에서 5학년도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는 저학년일수록 더 수용적, 자율적 태도를 나타내는 데 비하여 어머니는 고학년에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 때, 자녀들은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운데 통제적일 때, 자녀들은 공격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태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늘어나고, 양육태도의 차가 작아질수록 부적응 행동이 줄어지고 있다.

일곱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차이검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위축행동이 줄어들고, 자율-통제적 태

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과잉행동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각각 특징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대할 때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거부적, 통제적, 과잉압력적인 태도가 아닌 중용을 택하여 신뢰와 애정이 수반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할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긍정적인 자아 발전과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잘 적응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1996). 아동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승후(1991). 가족체제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형호(1978).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일 연구, 진주교대 논문집, 제5집.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및 적응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실.
- 박수정(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외(1996). 「부모-자녀관계」 서울: 학지사.
- 신금주(1994). 국민학교 아동에서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 진(1979). 가정에서의 정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성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리성(1993). 정서 부적응아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유안진·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희상(197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모주(1971). 가정환경과 교과성적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노(1989).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월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전순(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영(1992). 가족체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재(1976). 「가족과 사회」 경문사.

이태영(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자·정영숙(197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권 2호.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형진·이시용(1990). 「생활지도」 서울 : 교육과학사.

전경숙(1980).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 및 가족체제 유형이

-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전영실(1987). 부모간 및 부모와의 의견일치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85).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최윤호(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성,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선경(1978).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학원.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46. 478-488.
- Barbe, W. B. (1963). *The exceptional Child*, N. Y.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pp. 345-88.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 Bower, E. (1969).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2nd ed.*,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 Buss, A. H. & Plomin, R. A. (1975).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Coe, W. C. (1972). *Challenges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sisco : Rinchart Press.

- Dunn, L. M. (1969).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Fishbein, M & Ai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reud, S. (1910)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Psychology*. Vol 21, 1910.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 Y, New American Library.
- Hallahan, D, P & Kauffman, J.(1978). *Exceptional children*, Ea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inc.
- Hurlock, E. B. (1973). *Adolescent Development*, Tokyo : McGraw-Hill, Kogakusha, Ltd.
- I. L. Child. (1953). "Socialization", in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 Ilg, F. L. & Ames, L. B. (1975). *Child Behavior*, Lodon : Hamish Hamilton.
- Jersild, A. J. (1960). *Child psycholog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aglewood clifts.
- Kirt, S. A. (1972).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2n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1968).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rd ed, N. Y. : Harper & Row Publisher.
- Quay, H. C. (1972). *Patters of aggression, vithdrawl, and Immaturity*. N. Y. : John Wiley & Sons, Inc.
- Reinert, H. L. (1976). *Children in conflict*. St. Lois : Mosby Co., p 37.

- Roe, A. & Siegelman, M, A. (1963).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 Slater, P. E. (1956).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child. J. genetpscho.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 ships, N. Y. :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alters, J. &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 , N. Y. : A decade review of rese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 of Parents' Bringing up Children and
the Action of Emotional Maladjustment

Chung, Mae-ja

Majoring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soo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titude of parents' bringing up children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 of parents' bringing up their children and the action of emotional maladjustment.

To this, I surveyed the data of 1959 questionnaires (gathering from 653 fathers, 653 mothers, 299 boys and 354 girls) in 18 classes of 5th and 6th grade of 9 Elementary Schools in Cheju Do and used the SPSS computer program for processing the data.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 concluded as follows:

First, I studied on the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action of maladjustment. When fa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is acceptive-rejectiv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boy's action of maladjustment, meaningfully influences his boy's aggressive action and is related to his girl's aggressive action. And when father's attitude is autonomous-controlling, it meaningfully influences his boy's withering action and aggressive ac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Second, when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is acceptive-rejective and autonomous-controlling, it meaningfully influences only her girl's excessive action and aggressive action. When mother's attitude is giving pressure of achievement, it meaningfully influences her boy's excessive action and aggressive action. And when her attitude is consistent-inconsistent, it meaningfully influences boy's aggressive action.

Third, when father's attitude is acceptive-rejective and autonomous-controlling, it meaningfully influences the aggressive action of his 5th grade-boy or girl. When his attitude is giving pressure of achievement, it meaningfully influences the excessive action of 6th grade-boy or girl. When mother's attitude is acceptive-rejective, it meaningfully influences the excessive action of her 6th grade-boy or girl. And when her attitude is autonomous-controlling, it meaningfully influences the aggressive action of her 5th grade-boy or girl.

Fourth, I studi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father's and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he action of emotional maladjustment. When father's attitude is acceptive-rejective, it meaningfully influences the excessive action or aggressive action. And when mother's attitude is controlling, it is related to the aggressive action.

Fifth, I studied on the differ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fluence of mother's acceptive-rejective attitude and father's attitude of giving pressure of achievement.

Sixth, I studi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father's and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he action of maladjustment. According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ive-rejective attitudes of father's and mother's is more increasing, the withering action is more decreasing, and according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of autonomous-controlling of father's and mother's is more increasing, the excessive action is more increasing.

부 록

설 문 지

〈아버지 용〉

이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에게 대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가정의 부모-자녀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1998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정 매 자

※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 학력 : 중졸(). 고졸(). 대졸().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해 주십시오	항	상	자	주	가	끔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나의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녀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나는 나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나는 나의 자녀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나는 자녀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나는 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나는 나의 자녀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나는 자녀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나는 나의 자녀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자녀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나는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나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 한다.	4	3	2	1				
13. 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나는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나는 자녀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잘 한다.	4	3	2	1				
16. 나는 자녀가 이야기하면 자녀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해 주십시오	항 그렇다	자 그렇다	주 그렇다	가 그렇다	끔 아니다	전 아니다	혀 아니다
18. 나는 자녀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준다.	4	3	2	1			
20.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4	3	2	1			
21. 내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나는 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한다.	4	3	2	1			
23. 자녀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나는 자녀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나는 자녀와 이야기하면 자녀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자녀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나는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나는 자녀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나는 자녀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나는 자녀에 관한 일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나는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설 문 지

〈어머니 용〉

이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에게 대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가정의 부모-자녀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1998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정 매 자

※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 학력 : 중졸(). 고졸(). 대졸().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해 주십시오	항	상	자	주	가	끔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나의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녀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나는 나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나는 나의 자녀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나는 자녀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나는 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나는 나의 자녀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나는 자녀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나는 나의 자녀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자녀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나는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나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 한다.	4	3	2	1				
13. 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나는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나는 자녀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잘 한다.	4	3	2	1				
16. 나는 자녀가 이야기하면 자녀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해 주십시오	항	상	자	주	가	끔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18. 나는 자녀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준다.	4	3	2	1				
20.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4	3	2	1				
21. 내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나는 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한다.	4	3	2	1				
23. 자녀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나는 자녀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나는 자녀와 이야기하면 자녀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자녀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나는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나는 자녀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나는 자녀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나는 자녀에 관한 일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나는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설 문 지

〈어린이 용〉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8. 11월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정 매 자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성별 : 남 () 여 ()

♥ 학년 : 5학년() 6학년 ()

내 용	그렇다	아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 나는 조금 이라도 잘못하면 혼날까봐 겁부터 난다. 3. 나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4. 나는 웬지 눈치가 보이고 쉽게 당황한다. 5. 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싫다. 6.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7. 나는 동작이 느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 8.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마주 쳐다보지 못 하겠다. 10.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 시키는 게 싫다. 11. 나는 오랫동안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다. 12.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부산한 편이다. 13. 나는 신경질을 자주 내는 편이다. 14. 나는 너무 말이 많은 편이다. 15. 나는 무례한 행동을 잘 저지른다. 16. 나는 조그만 일에도 우쭐해지고 뽐내는 편이다. 17. 나는 내 뜻대로 안되면 때를 써서라도 하고야 만다. 18. 나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한다. 19. 나는 장난을 잘 치고 잡담을 좋아한다. 20. 나는 거짓말을 잘 친다. 21.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남과 다투는 일이 많다. 22. 나는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힌다. 23. 나는 주위 사람들을 헐박하고 위협할 때도 있다. 24. 나는 친구들을 잘 때린다. 25. 나는 화가 나면 내 물건들을 잘 집어 던진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p>26. 나는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다.</p> <p>27.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운다.</p> <p>28. 나는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불복종 할 때가 많다.</p> <p>29.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꾸중을 많이 듣는 편이다.</p> <p>30. 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 하는 편이다.</p> <p>31. 나는 일을 하면 끝까지 못할 때가 많다.</p> <p>32. 나는 내 자신이 어리고 몸도 약하다고 생각한다.</p> <p>33. 나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날 때가 많다.</p> <p>34. 나는 조금만 다쳐도 걱정을 많이 한다.</p> <p>35. 나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자주 걸려 넘어진다.</p> <p>36.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머리나 배가 아플 때가 있다.</p> <p>37. 나는 어리광을 잘 부린다.</p> <p>38.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p> <p>39. 나는 말을 더듬는 편이다.</p> <p>40. 나는 나보다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다.</p> <p>41. 나는 웬지 쫓기는 듯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p> <p>42. 나는 자주 피로해 진다.</p> <p>43. 나는 경쟁심이 강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p> <p>44. 나는 불안하여 안절부절 할 때가 많다.</p> <p>45. 나는 늘 남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행동한다.</p> <p>46. 나는 무서움을 잘 탄다.</p> <p>47. 나는 항상 조그만 일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드린다.</p> <p>48. 나는 남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한 편이다.</p> <p>49. 나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모르겠다.</p> <p>50.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p>		